

사단법인 일일시호일 이사회 회의록

1. 회의 일시 : 2019년 06월 11일 오후 6시 30분

2. 회의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3. 참석자 : 이사장 포함 이사 5명

4. 의제

- 1) 다문화불교연합회(가칭) 창립
- 2) 기타

5. 회의 내용

발언자	회의 진행 사항
심정섭(이사장)	<p>오늘 이사회는 그동안内外적으로 논의됐던 (가칭)다문화불교연합회 창립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열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 법인 일일시호일은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 지원을 중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상당수가 불교국가에서 온 점을 감안해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이주민 국가별 법당과 공동체 대표들과 만남을 가져왔습니다.</p> <p>그 대표들 대부분이 자체적인 연합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우리 역시 그 부분에 공감해왔습니다. 이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시혜적 관계가 아니라, 이주민과 내국인이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공존과 상생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들 공동체는 대부분 일일시호일 설립 이전부터 법보신문과 인연을 맺어 지원받았던 곳이고, 지금도 일일시호일의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곳들입니다.</p> <p>따라서 그 공동체 대표들 모두가 일일시호일에서 연합회가 정상적으로 창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아직 법적 단체로 활동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임의단체로 출범하게 되겠지만, 그 형식은 법적 단체에 손색없는 구조를 갖췄으면 하는 것이 그분들 요청사항입니다. 물론, 설립을 공식화하기까지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게 되겠지만 우리 법인이 이주민들에 대한 내국인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목적사업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일이라 판단됩니다. 그동안 사석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만, 오늘은 공식적인 이사회를 통해 이사님들의 의견을 모으고자</p>

김형규(이사)	합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인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사회는 다문화사회라고 해도 손색이 없고, 이주민들도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재형(이사)	두 분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사님들 의견이 같으면 좀 더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배현(이사)	저도 여러분 의견에 공감합니다. 향후 이주민사회의 활발한 활동과 역량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오영(이사)	이 안건은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동감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지부터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정섭	이사님들 모두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법인에서 적극적으로 다문화불교연합회(이하 다불련) 창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 다불련의 형태, 구성, 창립 준비 과정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규	어떤 법당과 공동체가 먼저 참여할 수 있을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오영	그리고 이주민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창립하는 단체이긴 하지만, 한국불교와의 교류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심정섭	스리랑카 이주민들의 구심점이 된 담마끼티 스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님은 오랜 한국생활과 깊은 문제의식, 그리고 유창한 한국어,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서 이주민 공동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스님과 그동안 나눈 의견으로는, 우리 법인과도 인연이 있는 베트남, 태국, 네팔, 캄보디아, 몽골, 미얀마, 중미 인연대 등이 다불련에 참여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권오영 이사가 말씀하신대로 이들 국가 대부분이 불교국가이고, 이주민들도 법당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어서 한국문화, 특히 한국불교계와 교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상호 이해의 소지가 없도록 돋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형	그렇다면 다불련에 참여할 법당과 공동체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남배현	아무래도 창립할 때까지의 과정에 전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각 한국어 구사 능력도 다르고, 남방 쪽 특성상 한국 사람들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담마끼띠 스님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심정섭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담마끼띠 스님이 각각 법당과 공동체 대표들과 통화를 해서 참여의지를 확인하고, 이후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설립취지, 정관 등을 구체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오영	설립이 구체화되면, 이후 이를 널리 알리는 행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불교계 인사들도 초청하고, 일일시호일과 연대해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찰 주지스님들도 참석하는 행사를 통해 다불련의 창립을 공식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정섭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다불련 창립 절차가 진행되면 그러한 내용도 포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규	그럼 일정부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법인에서 다문화홍보 비용 여력이 있습니까.
심정섭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불련의 창립을 알리는 광고와 창립식과 같은 행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 등 1천 만 원 이내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법인 사무국 인력으로 그 과정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법보신문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형규	인력 지원 문제는 법보신문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현재 법보신문 편집국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문제는 중간에서 간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섭	감사합니다. 법보신문 편집국에서 전담인력을 지원해 주시면, 일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권오영	이사님들 의견은 하나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해서 진행은 이사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면서, 이사들에게 진행과정만 한 번씩 공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 전원	권오영 이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심정섭	그럼, 우리 법인이 가칭 한국다문화불교연합회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우리사회에서 이주민과 내국인이 함께 상생해 나가는 길을 여는데 기여하는 또 다른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시고, 의견을 피력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심정섭 이사장

김형규 이사

남배현 이사

이재형 이사

권오영 이사



    